

학원선교 교육주일을 지킵시다!

2012년 3월 11일(주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학원선교회·교목회

학원선교교육주일

목차

2012년 3월 11일(주일)

인사말	이화식 목사 교육국 총무직무대리
-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지킵시다!” -	
설교	김종훈 감독(서울연회 감독) 학원선교교회장
-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	
자료	
1) 학원선교교육주일 예배문	교육국
2) 교목활동 ①	- 배화여자고등학교 이기성 목사
3) 교목활동 ②	- 명지고등학교 김종화 목사
4) 계통학교와 자매교회의 동역활동	- 영란여중과 예수마을교회 이야기 이평일 목사
5)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장운석 목사
6) 감리교 계통학교-교회 자매결연현황	
7) 감리교 계통대학 현황	
8) 관련기관 임원 현황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학원선교회·교목회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지킵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 직무대리 || 이 화식 목사

할 렐루야! 우리를 보다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학원 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역경과 순경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실천에 집중하시는 전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학원의 선교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초기부터 많은 학교들을 세워서 한국교육의 근대화와 민족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여왔습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계통학교들은 교회와 사회를 위한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감리교계통학교들이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복음적인 교회와 사회로 가꾸어 갈 명품 지도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할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온전하여진 “명품 그리스도인”들의 결핍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듯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옥문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100명의 진정한 감리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21세기의 사회는 평생 학습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평생 학습 인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학습과 훈련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의 우리 교육국의 교육 주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감리교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최고의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와 감리교 학교들은 명품 그리스도인을 생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목들과 학원 선교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사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 교회들이 합심하여 이번 학원선교주일을 성수할 때에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받으시며, 새로운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앞에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양방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 이사야 40:31 ||

|| 설교 ||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 사무엘상 16:14~23 –

|| 서울연회 감독, 학원선교회 회장 || 김 종 훈 감독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23)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6천여 감리교회와 160여만의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매년 3월 둘째 주일은 전국 감리교회가 감리교계통학교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학원선교교육주일입니다.

감리교회의 학원선교교육은 맥클레이 선교사가 교육과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고종황제로부터 윤허를 받은 1884년 7월 3일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8월 3일 정동에서 고영필, 이겸나 두 학생을 데리고 시작함으로써 학원선교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태복음 20:26-27의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배재학당을 세워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효시로 하여 스크랜튼이 1886년 5월 31일에 이화학당을, 남감리회 캠벨 여사는 1898년 10월 2일에 배화학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배재학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선교사들은 1887년 10월 8일에 지금의 정동제일교회의 전신인 벤엘교회를 세우고 배화학당에서 시작된 예배는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학원선교교육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영화(1892), 광성(1894), 정진(1896), 정의(1899), 루시(1903), 호수돈(1904), 송도(1904), 미리홉(1906), 승덕(1906) 등의 학교가 설립되고 기독교 정신 속에서 육영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선교활동의 발판이 되어 우리나라의 현대식 신교육의 기초를 이루었고, 아울러 민족과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어 훗날 민족계몽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며 복음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원선교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학원현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 기독교의 인터넷 등을 통한 활동과 내부적으로는 기복주의와 정과 연으로 연결된 가족주의, 개교회주의와 성장 위주로 인한 맘몬 우상숭배, 교회와 사회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로 인해 사회에서는 복음전파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면 기독교의 학원선교교육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학원현장이 어둡고 사회에서의 복음전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학원선교교육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가는 사명을 학원선교교육을 통해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는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하지.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게으름으로 뚫뚫 뭉쳐 있어. 반면 다른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과 친절, 겸손과 절제란다.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어.” 어린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늑대를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늑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질투, 교만과 게으름 등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과 친절 그리고 감사 등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야 되는지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벼림을 받은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는 모습과 이런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번뇌하는 사울 왕을 보고, 왕을 낫게 하려고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고 제안하자 왕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신하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해서 사울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신임을 받아 왕의 병기든 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번뇌하게 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착란증입니다.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의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에게 남은 것은 인간적인 추한 모습,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본능만 남아 있는 인간의 추한 모습입니다. 그 병은 점점 심해져 자기 사위이며 충성된 신하인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 근처에서 살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그것

을 끊어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사람입니다. 귀신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힘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대접 못 받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그를 피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닌 동물적인 본능만 남아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앞부분인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뿐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모습은 수금을 탈줄 아는 재주가 있고, 용감하며 지혜롭고 준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왕의 총애를 받아 왕 앞에 모셔 설 뿐만 아니라 왕의 병기 든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 왕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타면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떠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악취를 내는 자가 아니라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자 그의 달라진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나가자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들려서 사람 취급 못 받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전에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온전케 된 모습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귀신들린 상태의 모습과, 귀신이 나가 온전하게 된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왕의 모습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변뇌케 할 때의 사울 왕의 모습.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의 모습과 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성도가 되어 다윗과 같은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자료 1 || 학원선교교육주일 예배문

“학원선교교육주일 예배”

– 인근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

예배로의 부름	다	함	께
시 편 목 상	사	회	자
경 배 찬 송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다	함	께
교 독 문 83번 빌립보서 4장	다	함	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함께 드리는 기도	다	함	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비행과 탈선을 일삼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야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세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교우가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 젊은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청소년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	영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	함	께				
대	표	기	도	학	생	중	에서		
하나님의	말	씀	사무엘상 16:14~23	학	생	중	에서	
특	별	찬	양	- 성가대 또는 인근 학교의 찬양단의 찬양 -	성	가	대		
말	씀	의	증	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설	교	자	
					- 담임목사 또는 인근 학교 교목 -					
목	회	기	도	설	교	자			
봉	헌	찬	송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다	함	께		
봉	헌	기	도	교	사	중	에서		
성	도	의	교	제	담	임	목	사	
사	랑	의	찬	양	- 초청된 인근학교 교장, 교목, 교사, 학생 소개 -				
축				 장학금 수여 좋은 하나님 혹은 사랑의 떼	다	함	께	
						담	임	목	사

부모와 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좌담회

예배 후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교우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생각과 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좌담회를 갖는다.

- 발제 : 부모대표, 교사대표, 학생대표
- 주제 : 오늘의 청소년, 과연 이대로 좋은가?

발제자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오늘의 청소년들이 보이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며, 진행자를 중고등부 교사 중에서 선임하여 의견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위한 준비

1. 한 주일 전에 학원선교교육주일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회 주변 초·중·고 학교 교장, 교사, 학생을 초청하되 특히 기독학생 동아리나, 교목이 있는 경우 초청하여 예배순서의 일부를 담당케 한다.
2. 각급 학교 입학식과 개학식 후 처음 모이는 주일이므로, 입학 축하예배 또는 졸업 축하예배를 겸하여 신입생과 졸업생을 위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다.
3. 교회에 장학예산이 있으면 이날 예배 중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날 현금을 장학현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한다.
4. 학원 선교에 보다 적극적인 교회라면 지역의 교사, 학생들은 토요일에 초청하여 간담회, 자매결연 등을 가질 수도 있다.

|| 자료 2 || 교목활동 ①

배화여자고등학교

|| 배화여고 교목 || 이 기 성 목사

교목들이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사학은 한국 기독교의 전래 초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신앙을 전파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며 선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30여년 선교역사동안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전파의 큰 역할을 담당 해왔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현장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있는 교목이라는 직분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가장 매력 있는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1000여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흔자서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교목들은 각자의 학교에서 선교를 담당하여 말씀을 전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상담하며 학교가 기독교사학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되도록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목들의 일상을 보면 6시30분에 출근하여 아침기도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7시 10분에 30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아침기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면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시간에 학생들이 나와 기도하는 모습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아침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등교를 마치는 7시 50분에 맞추어 학교전체에 방송으로 찬양이 울립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통하여 간단한 아침묵상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교생이 참여하는 아침 묵상이 끝나고 나면 8시에는 교사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사들에게도 찬양과 간단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루가 반복하여 시작됩니다. 8시 20분부터는 1교시 수업의 시작입니다. 교목들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의 수업이 있습니다. 종교수업은 ‘생활과 종교’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한정하고 않고 개별적으로 만든 교안들을 가지고 종교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들을 접목하여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종교과목은 정규과목이기는 하지만 선택과목이기에 복수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이 있으며 또한 진보교육감에 의한 교육과학부의 특정종교에 대한 규제가 심해 종교수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사학의 설립 취지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사학이라 하지만 실제로 한 반의 학생들 중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생들은 평균 40~50%정도입니다. 신앙이 있는 학생들과 신앙이 없는 학생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이들 모두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수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업 전에는 ‘반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순서를 정해 기도하고 성경말씀을 읽고 난 후에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 유래들을 통해 기독교사학의 시작과 전통, 역사를 배우고 야외수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절기의 유래를 통해 기독교의 전통을 배우고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누며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합니다.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독교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고 때론 창조와 진화, 환경과 이성, 뉴에이지문화, 올바른 성가치관과 종교철학 등을 이야기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빼놓을 수 없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순서와 찾는 법을 배우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가르칩니다. 때로는 간단한 영상들을 통해 함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정기시험에 끝난 후에는 영화를 감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재미있어 하는 수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교리만이 아닌 종교적 가치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수업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배워가며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특정한 교과의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기독교의 심성을 키워가는 수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상담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들을 상담 합니다. 때로 신앙문제로 찾아와 상담하거나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혹은 이성에 대한 고민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교사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70여명의 교사들의 생일을 일일이 챙기고 교사들의 모임에도 자주 참여하려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선교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목회대상자로 보고 모든 교직원 경조사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고 때로 신앙상담도 하며 입원한 교사들에게 심방하여 위로하며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매주 부장회의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합니다. 때로는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독교사학의 정체성에 맞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교사들의 생각을 전하며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사를 선임할 때 인사위원회로 참석하여 신임교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교사들의 신앙이 학생들에게 너무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장학위원회에도 참여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합니다. 때로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의 수업료나 혹은 급식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교목실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학금이 아닌 사비로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교목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집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수요일 1교시는 전 교사와 학생들 전체가 참여하는 채플(예배)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예배준비모임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담당학생과 방송반 학생, 친양팀 리더, 합주반 대표, 성가대 리더 등이 참여하지요. 그날의 예배의 주제를 공유하고 각 팀별로 준비한 것을 확인하고 채플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합니다. 화요일에는 학생들과 함께 예배 프레젠테이션과 영상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저녁시간까지 채플이 진행될 강당에서는 친양팀 연습과 성가대의 연습을 확인합니다.

수요일 채플은 한 시간 전에 강당에 모여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방송 상태와 각 파트별 준비를 확인하고 친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채플은 일반교회의 예배와 다르지 않지만 때로는 학생이 좋아하는 친양팀을 초청하기도 하고 음악회를 열기도 하며 사회 명사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여 후원하고 있으며 생명 사랑 나눔운동본부와 함께 장기이식서명운동에도 참여하며 구세군을 초청해 자선냄비 모금운동에도 참여하며 맹아선교회 친양팀을 초청해 장애인을 위한 후원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절기예배(부활, 추수예배)때에는 자매교회와 연합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예배 때는 학생들 세례식을 베푸는데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아 150여명의 학생들에게 세례교육을 하고 세례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채플이 끝나면 채플에 대한 영상을 편집하여 학교 홈페이지의 교목실 활동에 올려 학교의 선교활동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지방회와 연합한 행사로 Class 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지방 교역자를 초청하여 학교의 선교활동을 소개하고 각반에 들어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 대한 지방회의 관심을 이끌고 학교의 학생들을 지방의 교회와 연계하게 하여 실재적인 전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회로 아침 기도회 외에 묵상집을 만들어 고난주간 기도회를 진행하며 수험생 기도서를 만들어 고3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보름간 진행합니다. 또한 학부모기도회로 매달 셋째 목요일 오후 4시에 학부모들과 함께 모여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학교의 선교활동을 소개하며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교사기도회모임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통해 모임을 갖고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각반에 반장 외에 한명은 선교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반 전체를 대표하는 반장과 달리 교목실의 활동을 돋고 채플을 돋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신앙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지요. 이들이 실제로 종교수업과 채플에 큰 도움을 주는 학생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수업이 끝난 방과 후 시간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시간을 갖고 있으며 특별히 여름에는 수련회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각 반에서의 선교활동을 점검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단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소녀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같이하며 YWCA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목이 있는 교목실은 항상 개방되어있습니다. 항상 사탕이 준비되어있어 어떤 학생이든 수시로 드나들며 사탕을 먹기도 하고 놀다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사들도 찾아와 학교와 학생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지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과 교사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공유하기도 합니다.

현재 감리교계통학교는 55개가 있으며 감리교교목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학교현장에 대한 여러 주제로 세미나를 통해 각 학교의 행사들을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독교학교연맹에서 주관하는 ‘전국 하기교목회’를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 교목들이 세미나를 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감리교학원선교회의 주관으로 영성세미나를 개최하여 기독교사학의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기도하며 영성을 쌓고 있습니다. 7시에 출근해 5시면 퇴근하고 방학이라는 오랜 시간의 휴식이 있는 교목이라는 자리는 너무도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1000여명의 학생과 70여명의 교사의 신앙과 학교의 운영, 선교를 도맡아해야 하고 그 모든 준비 또한 교목이 혼자서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편안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또한 학교라는 현장은 행정상 결정권자인 교장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교과부의 종교교육과 기독교선교에 대한 제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활동을 통해 변화되는 학생들과 신앙 안에서 꿈을 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미래의 신앙을 책임지며 소명을 주는 막중한 자리임을 잊지 않고 기독교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현장에서 끊임없는 경쟁구조 속에 서로를 친구가 아닌 경쟁상대로 생각하며 성적과 대학진학이 삶의 모든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학생들, 이들은 가정에서 내몰리고 사회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꿈을 갖게 하고 이 땅의 지도자로 키워가는 것이 기독교사학의 가장 큰 선교이며 교목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과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꿈을 갖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목들과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독교 학교현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자료 3 || 교목활동 ②

명지고등학교

|| 명지고 교목 || 김 종 화 목사

1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발적 기도회로
수능의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진행된다.

11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끝으로 수험생으로서의 고교생활은 마무리가 되어간다. 수능의 결과가 나오는 12월 13일부터 새해 2011년 1월 21일까지 40일 동안 명지고에서는 입시, 학교, 기관장을 위한 릴레이금식기도가 진행된다. 40일간 120끼 중 교직원과 학부모가 자신이 담당할 날을 정하여 끊이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릴레이 금식에 동참한다. 올해는 학부모 기도회 모임에 나오시는 학부모님들 중 12분과 교직원을 포함하여 총 76분이 참여하셨다. 한분이 1끼에서 많게는 15끼까지 총 160끼 이상을 금식하시며 중보 기도함으로 한해의 끝과 시작을 함께 하였다.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기념 케이크 →



2 크리스천 리더십 캠프

물질만능주의에 사는 이 시대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높이 드러낼 리더 양성이 중요한 교육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설립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올해에도 새 학기를 맞이하며 학급 주요 간부들에 대한 크리스천 리더십 캠프가 3월 11일(금)~12(토) 1박 2일간 불광동 팀비전센터(팀수양관)에서 실시되었다.

먼저 장영진 전도사와 M.C.S 찬양, 송찬미 전도사의 레크리에이션의 진행은 즐겁고 유쾌함 속에 학생 모두가 하나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교육을 위한 강의는 학생들의 선배님이신 이성헌 의원(서대문갑 국회의원, 명지 17기)의 리더십 강의와 교목 김종화 목사의 학급목회 실천 워샵, 김규진 부장(진로 상담부)의 큐티 및 역할극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십자가 촛불 아래 함께 기도하며 학급 임원으로 섬김의 실천을 위한 학급 목회 십계명을 작성하는 등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삶과 사랑을 다짐했다.

3 학부모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층 선교실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기도회가 열린다. 올해에도 4월 5일부터 졸업생 학부모님의 간증 속에서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입시를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과 불안들을 찬양과 말씀과 간증 속에서 은혜로 가득채우는 시간이다. 교목실 강현구 선생님과 송찬미 그리고 장영진 전도사님의 찬양과 반주, 명지동문이신 이주헌 목사님과 이상무 목사님 그리고 교목 김종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회를 인도해주신다. 학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말씀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 신앙 활동을 함께 나누며 참여한다.

학기별로 한 번씩 실시되는 야외 기도회 모임은 1학기에는 선교 유적지인 ‘양화진’으로, 2학기에는 인근에 있는 ‘아를 식물원’을 방문하며 기도와 말씀과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함께 가졌다. 문화행사로는 MJ컴퍼니 주최로 한 뮤지컬 관람을 하였다. 1학기에는 기독교 선교 뮤지컬 <뮤지컬 바울>을 대학로 극장에서, 2학기에는 <뮤지컬 화랑>을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관람하며 음악과 춤 그리고 감동의 시간을 함께 하였다. 신앙 부흥회 찬양 및 입시 중보 산상 기도 모임, 명지찬양제 등에도 함께 참여하며, 모임 때마다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현금은 신앙생활 우수자 및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4 선교부장반 계발활동



각반 선교부장들은 설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담당한다. 크리스천 리더십 캠프를 시작으로 방송 큐티, 반별 주관 예배, 학급 목회 십계명 실천 등을 담당한다. 학급에서 질병 및 각종 문제들로 고통 받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교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

학급의 선교부장들은 계발활동을 통하여 전문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선교부장 일일 부흥회, 명지학원 선교실(명지대학교교회) 방문, 양화진(외국인 선교사 묘지) 방문, 정동교회 및 이화학당 방문, 경신고 방문, 언더우드 기념관 방문 및 절기별 불우아웃돕기(홍은치매노인복지원, 세브란스, 명지병원, 베네스다 교회 결핵환우, 경로당 등) 등의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의 실천을 함께 한다.

5 사순절 절기 (릴레이 금식기도, 세족식)



새 학기와 그리스도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2011년 4월 3일부터 23일까지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었다. 작년 43분에서 올해는 49분의 학부모님이 88분 교직원과 함께 금식에 참여하시며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로, 이 기간 자기 근신과 금식의 기간 즉 영적 훈련을 체험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마 16:24)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주를 향한 완전한 희생을 체험하며 부활의 신비를 기다린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며 부활절 전 주인 고난 주간에는 ‘세족식’을 통해 교사들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고, 제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삶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교목 김종화 목사의 ‘제자의 조건’(요 13:34-35)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처럼 서로 섬김과 사랑을 행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전하였다. 이어 스승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행해야 하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세족식을 행하였다.

암브로시우스의 ‘주님의 발을 씻도록’의 글을 함께 묵상하며 ‘저의 눈물로써 당신 발을 씻도록 허락하소서 그럴 때 저 자신도 씻겨질 것입니다’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6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4월 25일 월요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드렸다. 각 반마다 달걀을 삶아 학교로 가지고와 예배 강단을 아름답게 꾸몄다. 김종화 목사님의 ‘부활의 증인’(요 20:24-29) 말씀과 반별 찬양, 음악 선생님이신 강현구 선생님의 특송, 특별히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은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시간이었다. 예배 후 부활절 달걀 등으로 기관(세브란스, 명지병원, 경로당, 결핵환우, 흉은치 매원 등)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4월 25일 월요예배 시

7

성령강림절



서울시와 월드비전에서 주최하는 “2011 하이서울 페스티벌” 사랑의 동전밭 캠페인 행사에, 학생들은 결식아동 등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실천을 함께하였다. 전달식은 6월 13일(월) 성령강림절 기념예배 시에 월드비전 서울북지부 관계자 분에게 학생들이 3개월간 모아온 500여개 ‘사랑의 빵’ 저금통을 전달하였다. 학생들 가운데에는 사랑의 빵 저금통을 2~3개씩 모아오는 정성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는데,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스한 사랑과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를 주최한 월드비전에서는 감사장과 ‘사랑이 꽂피는 학교’ 감사패를 학교에 전달하였다. 월드비전 기부금의 일부는 교내 2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성령강림절 특별 순서로 연구부의 도움으로 교육청 재능기부자 동방현주의 특송(사명, 베드로의 노래, 사모곡)이 있었다. 특별히, '사명'은 교목실 기획 및 음악을 담당하시는 강현구 선생님과 듀엣으로 열창하여 큰 감동과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결단의 찬송으로 일어나 모두 함께 '사명'을 부르며,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새사람(엡 4:22-30)' 모습되어 사랑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겠노라고 다짐했다.

8

신앙부흥회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 2011년 7월 6일(수)~8일(금), 3일 동안 신앙부흥회를 개최하였다. 늘기쁜교회 담임목사이며, 청소년 부흥사이신 문대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창조주를 기억하라”의 주제 하에 6일 ‘창조자를 기억하라’, 7일 ‘술취하지 말라’, 8일 ‘신령한 세계’를 제목으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에서는 M.C.S(명지기독학생회)의 찬양과 1학년 11반, 2학년 8반, 3학년 12반의 주관반 특송 및 학부모 찬양단, 관악부 특주(박현서 선생님 외), 명지 동문 선배님 찬양, 교육재능기부자 김미영(연세줄리어드학원 원장) 바이올린 특주, 명지초등학교 참빛 선교단의 합창, 강현구 선생님의 특별 찬양 등으로 인해 더욱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다. 특별히 문대식 목사님의 설교는, 그의 친동생인 개그맨 ‘문천식’ 만큼이나 재미있고 흥미가 있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치 있는 설명은, 학생들로 하여금 최고의 강사였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였다. 각 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부흥회에 참석해야만 했던 2, 3학년 학생들 중에는, 직접 방목 다목적관으로 내려와서 직접 부흥회에 참석하는 등 깊은 열의를 보이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부흥회를 마치고 신앙 글쓰기를 통해 말씀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9 1학기 세례식



2011년 7월 16일(토) 1교시, 명지고등학교 ‘방목 다목적관’에서 1학기를 마감하며 방학식을 맞아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작년 1학기와 2학기 총 85명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넘어 올해에는 1학기에만 141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으며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

교목 김종화 목사님은 ‘하늘의 소리’(마 3:16-17)라는 제목으로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늘의 기적을 늘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권면하셨다. 세례식은 교목 김종화 목사님, 명지 동문 목사님이신 이주헌, 이상무 목사님과 명지중학교 이기봉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10 추수감사절



2011년 10월 31일(월)에는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찬양예배로 오윤경, 손지혜, 김예지 학생들의 독창과 명지 중창단, 관악부의 특별 찬양과 특주로 함께 하였다.

교목 김종화 목사님은 ‘구원의 증거’(시 50:23)라는 제목으로 말씀해주셨다. 어두운 사탄은 두려움과 교만을 무기로 우리를 자신 속에 갇히게 만들고 주위에 무관심한 인간으로 만들지만, 어린 핏덩이 같았던 자신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부모님과 친구, 선생님과 선앙인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 감사의 고백을 나눌 때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구원과 믿음의 증거는 감사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헌물(쌀, 과일 등)을 홍은치매복지원, 명지병원, 세브란스 병원, 베데스다교회 결핵환우분, 독거노인, 경로당 등 주위에 전달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11 수능특별예배 및 기도회



수능시험 D-day 3일을 남긴 2011년 11월 7일(월). 수능생을 위한 예배 및 기도회가 1교시에는 방목다목적교육관에서 ‘특별기도예배’로, 점심시간에는 5층 연수실에서 ‘특별안수기도회’로, 저녁에는 불광동 팀수양관에서 ‘중보기도회’로 모임을 가졌다.

‘특별기도예배’는 김익동 3학년 학급목회팀 인도로 수험준비를 위한 기도(임필환 진학지도부장), 시험과 진로를 위한 기도(김규진 진로상담부장), 사회 진출을 위한 기도(곽해룡 연구부장), 부모님의 기도(민경자 학부모)의 기도가 있었다. 이어 학부모 기도회에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과 고3 담당교사들의 ‘할 수 있다 해보자’ 수능 응원가, 예체능반의 ‘새힘을 얻으리’ 찬양, 총학생회의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이 있었다. 고3 선배님을 위한 편지를 총학생회장 박동훈 군, 최소영 양의 낭독 후 모두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반별로 쓴 1,2학년 후배들의 편지를 3학년 선배님들에게 초콜렛과 함께 전달하였다. 수험생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노래’(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부르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교목 김종화 목사님은 ‘아들의 시험’이라(막 1:9-13)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고통의 턱끌을 눈물로 감싸며 진주를 만드는 진주조개처럼, 고등학교 3년 동안 헌렸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결실로 나타나기를 염원하였다.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다른 점은 시험이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진정한 가치를 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물속이든, 불같은 광야 같은 상황 속이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권면하셨다.

‘특별안수기도’에는 점심시간에 1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말씀과 기도 받기를 원하며 모여들었다. 수험생 선배님이신 명지동문 김한원 목사님(서부제일교회)의 은혜의 말씀 후에 교목 김종화 목사님과 동문이신 아주현, 김한원 목사님 그리고 명지중학교 이기봉 목사님께서 수능생들이 직접 작성한 기도제목을 보시며 한명, 한명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해주셨다.

‘중보기도회’는 저녁에 학부모 기도회와 황남택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간부 선생님, 고3 담임 선생님 등 60여명이 합심하여 수험생 930명(고3 재학생 613명, 졸업생 317명)을 위해 1부 예배와 2부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교목 김종화 목사님은 ‘공감하면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변화의 능력’(출 15:22-2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무토막 하나로 단물로 변하듯이, 예수그리스도의 나무토막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며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듯이,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인생으로 변화됨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기도회는 박완규 선생님(교목실)의 인도로 찬양과 간증 속에 진행되었다. 회개기도(김규진 진로상담부장),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김익동 3학년 학급목회팀), 명지학원과 명지고등학교를 위한 기도(곽해룡 연구부장), 명지고 수험생들을 위하여(임필환 진학지도부장)의 기도와 김종화 목사님의 축도가 있었다. 황남택 교장 선생님은 참여해주신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격려하셨고, 감사의 인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12 명지찬양 2011



2011년 11월 20일(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명지학원 가족들이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명지대학교 교회 사랑홀에서 명지학원 기관별 찬양발표회 ‘명지찬양 2011’로 모였다.

1부에는 양혁승 목사님(시 133:1-3)의 말씀 후 2부에는 찬조까지 총 11개팀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찬양하고 응원하며 격려하는 축복된 자리였다. 명지고등학교는 관악부 찬조(지휘:박현서)로 ‘Amazing Grace’, ‘영광 영광 할렐루야’ 특주가 있었고, 교직원과 학부모 기도회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지휘:손은규) 찬양이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명지고등학교는 연속으로 장학금 100만원과 함께 ‘은혜상’을 수상하였다.

13 성경암송대회



2011년 12월 17일(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교훈 ‘산상수훈 암송대회’를 하였다. 학생들은 한국어(심사 : 김규진, 장영진, 송찬미), 영어(심사 : 김영호), 중국어(심사 : 양훈주), 일본어(심사 : 조인경, 김선임)로 암송을 하였다.

재작년 대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마 6장을 암송한 김강은 학생이, 작년과 올해는 한국어 마 5-7장 전체 암송한 이호진, 문경민 학생이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연이어 총신대, 명지대 등에 합격하고 후배들에게 계발활동 시간 신앙의 삶(시에라리온 선교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암송을 넘어 고백적인 삶의 간증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암송대회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이은혜, 특수반 권영대 학생이 참가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14 성탄절



성탄절 주간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예배 및 찬양예배 등이 있었다. 2011년 12월 22일(목) 1층 선교실에서 지난 일 년간 명지의 가장 어둡고 힘든 곳을 섬기시면서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들(행정실 일하시는 분, 특수반 등)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렸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성탄 의미를 기억하며, 함께 감사의 뜻을 담았다. 예배 후 함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생일축하 노래를 하고, 황남택 교장 선생님의 격려 말씀과 선물 전달이 있었다. 2011년 12월 19일(월) 성탄찬양예배에서 교목 김종화 목사님은 ‘예언과 성취’(사 9:1-7)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야 탄생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왕궁조차 누추한 곳이었지만 어두운 죄악에 물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몰고 명예를 지우며 십자가에 죽였고,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였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는 빛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맞아들이는 성탄이 되기를 기원했다. 성탄찬양예배는 관악부 ‘크리스마스 메들리’ 특주와 김남수, 오혜진, 김예지 학생의 독창, 1~3반 학생들의 ‘성탄 찬양 메들리’ 그리고 신은정 선생님, 여경기 선생님의 특주와 시각장애 이은혜 학생과 강현구 선생님의 캐롤 특별 찬양 등이 있었다.

15 2학기 세례식



2011년 12월 23일(금) 2학기를 마감하며 종업예배와 함께 세례식을 하였다. 2학기에는 학생들(149명)과 수위실을 포함한 교직원(7명)을 합하여 156명이 세례를 받았다. 1학기 141명의 세례와 함께 2011학년도에는 총 297명의 명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였다.

교목 김종화 목사님은 ‘큰 기쁨의 소식’(마 2:1-11)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빛을 따라 나아감으로 크게 기뻐하고 기뻤던 동방박사들과 세상 권력에 눈이 멀어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인 해롯의 어둡고 비참했던 인생을 비교하시며 말씀하셨다. 생명과 구원의 빛되신 예수님의 탄생이 결국 서력(西曆)의 기원이 되었고,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이, 세례를 받은 명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권면하셨다. 함께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세례 받는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죄를 씻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삶 속에 펼치며 살기를 다짐하였다. 세례식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교목 김종화 목사님, 명지 동문 목사님이신 이주현, 이상무 목사님과 명지중학교 이기봉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2011년 세례 받은 297명의 명지인들이 새로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둘 기같이 늘 임하시고 동행하시길 함께 기도했다.

|| 자료 4 || 계통학교와 자매교회의 동역활동

영란여자중학교와 예수마을 교회 이야기

|| 영란여중 교목 || 이 평 일 목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위의 성경구절을 생각나게 연합이 있는데 바로 이대병설 영란여중과 예수마을교회입니다. 영란여중은 자매학교인 이화미디어고등학교(구 영란여상)와 더불어 이화학당에서 1969년도에 중랑구 망우동에 설립한 학교입니다.

예수마을 교회는 10여 년 전 도봉구 방학동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처음 영란여중과 예수마을교회는 서로 위치도 다르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란여중, 영란여상 교목으로 재직하시던 이천진 목사님의 수고로 2002년 영란여중과 예수마을 교회는 자매관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매결연을 맺는다 할지라도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여중과 예수마을교회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매년 3월 달이 되면 학교에서는 예수마을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하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새 학기의 시작을 자매교회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란인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자매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은 물론 장로님, 권사님들도 시간을 내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십니다. 때로는 바쁜 사업도 뒤로 하시고 학교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예배 중간에는 자매결연 초기부터 지속해 오고 있는 학원 선교를 위한 선교비와 장학금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 선교비는 학교 교비로 충당할 수 없는 다양한 선교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 및 유명 CCM 가수를 초청하기도 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면서 활발한 학원 선교를 감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장학금은 매년 10명의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선발하여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 년 학교에 찾아 오셔서 장학금을 주시고 선교비를 주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학원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매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교목실에서는 열심히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9월 달이 되면 신앙부흥회 및 세례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식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어서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예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식도 자매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란여중 학생들은 150여명이 매년 세례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세례 신청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자매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례식을 도울 10분의 목사님을 초청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중학교 학생들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과 그 뒤에서 세례보좌를 돋는 선생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영란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란인들이 전교생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매교회의 관심과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매교회의 활동에 보답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도 자매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에는 교사 추수감사 예배 때 자매교회 목사님을 다시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란여중에서는 이화미디어고등학교와 더불어 11월 달이 되면 교사 추수감사 예배를 중, 고등학교가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수감사를 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는 고백위에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낙범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참된 의미를 선포해 주셨고, 예배 후에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시면서 친교를 나누시면서 학원 선교의 중요성과 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교사 추수감사예배에 이어서 다음날 전교생 추수 감사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일 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자매교회를 방문할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60여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예수마을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자매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 학원 선교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의 성가대는 학교 학생들이 맡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4~5곡의 성가를 부릅니다. 선생님들도 준비된 특송을 하시면서 학교와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자매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맛있는 음식은 자매교회를 방문하는 또 다른 기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개 교회 중심의 성장이 아닌 남을 위한 관심과 특히 다음세대를 위한 학원선교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다양한 선교적 사명에 좋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나눔과 사랑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매교회가 있음으로 학원 선교에 탄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신앙의 삶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 모두에게 좋은 점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매결연의 관계가 더 많은 학교와 교회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자료 5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기독교회와 서울시민은『서울시 학생인권조례』시행에 앞서
학교 현장의 소리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 배재고등학교 교목실장 || 장 운석 목사

‘교과부는 2011년 12월 19일(월) 서울시 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난 1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진행하자 교과부는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냈다.’는 기사를 읽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문제’를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학생인권조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문제가 있다 없다고 설전을 벌이고 법리를 따져 묻는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그 내막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학교 현장에 온 생을 걸고 학생들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나로서는 사랑하는 아이들(학생들)의 인권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동안 이 모임이 순수하게 ‘학생인권’ 차원은 아닌 것 같아 걱정스러워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탄생시키기까지 그 과정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과연 학생인권을 생각함에 ‘정직했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

2010년 ‘시민의 의견과 힘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는 2011년 5월 서울시 유권자의 1%를 넘긴 8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부 서명이 무효 처리돼 추가 서명을 받았고 작년 8월 초 최종적으로 9만7천여명의 서명이 유효하다고 인정돼 조례 제정 청구 수리가 결정됐다. 교육청도 이와 별도로 자문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작년 9월초에 발표했지만 이후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서 교육청안은 시의회에 제출되지 못하였다. 이후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작년 12월19일 시의회 교육위에서 가결된 뒤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날인 20일 교육청으로 넘어왔다. 공포와 재의 요구를 놓고 고심하던 교육청은 재의 요구 시한을 하루 앞둔 8일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시의회 교육위 의장에게 ‘재의 요구’ 결정을 알렸다. 그리고 1월 19일 구속되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출소하면서 20일 재심의를 철회하고 1월 26일 이를 공포함으로써 교과부의 재심의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예견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는 제 1조(목적)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 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기초하여 인권의 보장을 통하여 인간적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함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이 때 자유는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도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목적과 명분으로 마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쟁점화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성애 차별금지 –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체벌 전면금지 –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체벌, 따돌림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3. 두발 및 복장 자유화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단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4. 휴대전화 허용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학생의 휴대전화 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종교의 자유 –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집회 허용 –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내 집회는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위의 내용은 보는 시각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기에 내용에 앞서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적인 문제점

첫째,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당연함이 결핍되어온 학교현장의 문제가 사실은 사회구조와 교육구조의 잘못된 방향에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학교현장에 적용하려는 성급함과 일방성이 더 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교육구조는 학생 및 청소년들이 학력(學力)의 신장을 통해 스스로 생의 문제에 대한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구촌 사회의 다양한 글로벌 인재로 설 수 있도록 양성하는 방향성과 제도, 정책의 백년대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의 기본 이념이 무색하게 미래가 안정되고 취업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허울에 빠진 학력(學歷)에 따른 차별과 입시위주의 사회구조를 조장 혹은 지속시킴으로써 서열화에 내몰린 대다수의 청소년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 이런 학력(學歷) 취득 경쟁에서 소외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지금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교실에서 혹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인성을 지니고 살아야 할 아이들이 교실 붕괴, 학습권 침해, 학교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 성문제, 자살 등 학교 문제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자유 없이 인권조례로 아이들의 삶이 개선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둘째,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되어온 ‘서울시 주민 발의 학생 인권조례’에 대하여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과 당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무책임하게 그대로 수용함으로 학교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오늘날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알면서도 근본문제의 개선이나 혁신은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포함은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현행 교육제도인 평준화체제가 이미 상당부분 붕괴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 주민 발의에 의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충분한 교감 없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거나 부풀려진 사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학생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발전시켜 나아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부모,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격형성과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모임의 주도적인 일방성으로 학교 현장은 외면된 채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소재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그 어떠한 검토나 협의과정을 제안하지 않고 또한 일방적으로 수용, 공포

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당사자들이 이해 가능하고 수용가능하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학생 인권조례가 되어야 한다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생회, 학급회 등 의견수렴의 창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과정이 무시된 채 진행되어 온 과정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셋째,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신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급급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 목적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시 주민 발의라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과정 상 용인할 수 없는 특정 종교 세력이 개입 함으로써 오히려 종교편향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학생인권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인권은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는가? 현재도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무시와 차별, 홀대, 사회적 편견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생은 같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에 있어 유보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학교 밖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일상은 그 어떤 혜택도 안전함도 보장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의 소중함 너머 청소년 인권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서울시 주민의 발의로 청소년 인권을 주장한다면 그 안에 학생들의 인권도 함께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는다.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표방한 조항과 내용은 그 의도가 아무리 헌법정신에 기초한 종교의 자유를 구체화 시킨 것이라 할 지라도 진정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용에 있어 세세한 항목들이 그동안 5차(1988-1994) 교육과정으로부터 현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교육관련법 - 교육법, 교육시행령, 교육지침, 교육청 장학지도 등 지속적으로 기독교사학에 각종 제재를 가해 온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종립사학 가운데 특히 기독교계 중등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다른 종교에 의한 기독교사학의 종교교육활동 제한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종교편향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1만1천237개교다. 이중 종립사학이라 불리우는 사립학교는 1천669개이며,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에서 운영하는 종교사학은 약 4백개교다. 이 가운데 특정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비교해보면 기독교가 68.6%, 가톨릭 16.1%, 불교 5.1%, 통일교 1.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3.4% 등으로 기독교계 학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학생의 종교자유는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와도 합치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사에서 기독교사학이라 불리는 종립사학은 교육기본법 제 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따른 교육과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교교육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그동안 학생들의 초등 등 학교 임의배정 혹은 강제배정이 가져온 결과로서 학생의 종교 자유가 왜 보장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일부 사립초등학교, 특수중(국제중, 예체능중),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고, 특성화고, 예체능고)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어 종교성에 따른 해당 종립사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자신의 종교에 따른 학교기피나 선택권 없이 임의, 강제 배정을 따른다. 이처럼 교육제도상의 문제는 자신의 종교와는 관계없이 종립사학에 배정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종교자유 피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이 문제의 원인으로 호도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회피며 자기 기만이다. 이에 편승하여 종교의 자유를 내세운 일부 종교가 종교편향을 내세워 종립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사학을 종교의 자유라는 법리적 명문으로 공격하는 것은 학생의 진정한 종교 자유를 확보하려는 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일부 종교 세력이 가담하여 발의한 행위는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특정종교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특정 종교의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학생인권을 위한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가세한 해당 당사자들은 그 뜻과 행위가 바르지 못함에 뉘우치고 인권의 목적에 걸맞는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학생인권이 담고 있는 모든 조항이 학교 현장에 걸맞게 수정되고 보완되어 학생 당사자들의 소중한 인권을 위한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학생 인권, 더 나아가 청소년 인권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실천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지혜를 공유해야 한다.

■ 바른 학생(청소년)인권조례를 위한 제언

우선 앞서 지적한 대로 교육의 문제는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 학력(學歷)과 학벌, 경쟁과 성적, 입시위주의 정책에 경도된 교육의 고질적인 방향을 교육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인식의 구조를 바꾸어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평생 관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학력(學力)을 성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소위 명문대학, 서울소재 대학 출신이 성공의 상징이 되는 사회, 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주요과목 성적이나 주입된 스펙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살고자 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선택으로 사회 혹은 대학으로 나아 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학력(學歷)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사회 각 부분에서 요청되는 개별 학력(學力)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최종 목표를 두고 무한 경쟁을 펼치는 소모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 제도와 현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무책임한 대학들이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대학(大學)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 교육청은 1월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교육부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가피한 갈등을 조장하는 일종의 교육권력 남용을 중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한걸음씩 뒤로 물러나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교현장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토대로 서울시 교육청은 소통과 합의로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학생인권조례’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진정 학교, 학생을 생각하는 교육당국의 자세일 것이다.

셋째, 한국 교육사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종립사학 가운데 기독교사학이 가지는 위상을 편 하하거나 그 기능을 위축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종교사학이 가지는 가치와 세계관이 학생들의 건강한 인격을 도모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당국은 해당지역 종교사학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토대로 자신의 종교에 따른 학교선택권 내지 기피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종교 자유가 침해 되지 않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제도화된다면 임의 배정이나 강제배정에 따른 종교 자유의 갈등이나 종교 사학의 자율성 논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넷째, 한국 교회는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전교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유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앞서 제기 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이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교육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폐해를 막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돋는 공정 사회가 성취될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립사학을 통해 한국근대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자부심을 토대로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생명의 사람의, 평화의 길’을 함께 가는 ‘홍익인간’의 교육이 실현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 자료 6 || 현황 ①

감리교 계통학교-교회 자매결연 현황

번호	학교	이사장	교장	교목	자매교회	담임목사
1	경화여자중학교	김득연	최진복	우종억	대림교회	임준택목사
2	경화여자고등학교		최진순	김정석	신풍교회	김연규목사
3	경화여자E비즈니스고등학교		이현아	서영옥		
4	광성중학교	김동선	최준수	허광열	성광교회	방원철목사
5	광성고등학교		최준수	김신월	은제교회	김응용목사
6	대전대신중학교	이기억	박영진	서정식	천성교회	조성근목사
7	대전대신고등학교		이석주			
8	덕신고등학교	강효성	김건중	한지훈	강화중앙교회	장영철목사
9	명지고등학교	송자	황남택	김종화	모래내교회	윤병조목사
10	매향중학교	김유숙	이재오	김학석	영화교회	김 철목사
11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최영관	강영옥	수원종로교회	안희선목사
12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박종세	손영조	박성환	광림교회	김정석목사
13	서울문영여자중학교		김남수	박성환		
14	배재중학교		한경훈	이경진		
15	배재고등학교		김문환	신영경	수표교교회	김고광목사
16	배화여자중학교	황방남	김용복	장운석	정동제일교회	송기성목사
17	배화여자고등학교			박성중		
18	18			안향미		
19	삼일중학교		김주남	김은철	종교교회	최이우목사
20	삼일상업고등학교	서철	이경표	이기성	자교교회	이승호목사
21	삼일공업고등학교		백일현	최리균	안양교회	임용택목사
22	서울관광고등학교		민찬홍	김경진	도봉교회	이광호목사
23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정의선	소진억	김학규	수원성교회	최승균목사
24	서울예술고등학교	최영숙	조금석	김의령	중앙교회	정의선목사
25	성신여자중학교	이대봉	한상국	박성환	광림교회	김정석목사
26	성신여자고등학교	김순옥	서영님	김은주	세검정교회	황문찬목사
27			김옥진	최종혁	돈암동교회	김동걸목사
28			최경호		돈암교회	현인호목사

번호	학교	이사장	교장	교목	자매교회	담임목사
26	성일고등학교	김기성	이석일	김세환	의산영생교회	이성우목사
27	송도고등학교	이수영	권영섭	조희영	부천성은교회	허원배목사
28	안양상업고등학교	최중재	최종욱	송상면	봉천교회	김광년목사
29	영란여자중학교	장명수	김명식	이평일	예수마을교회	성낙범목사
30	공주영명중학교	표용은	오대현	유혜종	공주중앙교회	황충호목사
31	공주영명고등학교		오대현		공주제일교회	윤애근목사
32	영화여정보고등학교	김홍규	김정연	이광선 김현정	내리교회	김홍규목사
33	예원학교	김정국	이종기	서세훈	아현중앙교회	이선균목사
34	온양한울중학교	김진우	김수홍	김향아	대명교회	김영호목사
35	온양한울고등학교		박우승		한마음교회	최형근목사
36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김기종	강사경	김성광 문은실	이천중앙교회	박영준감독
37	이천양정여자중학교		김용대	하은용		
38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장명수	최진자	이대길 차은혜	금호제일교회	김지성목사
39	이화여자고등학교	김고광	강순자	국화용 이영복 이광채	정동제일교회	송기성목사
40	이화외국어고등학교	김고광	한현수	김형석	은평교회	김영현목사
41	이화여대사대부속중학교	윤후정	성효현	이현숙	창천교회	서호석목사
42	이화여대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유정문	조종철	대신교회	홍원영목사
43	인덕공업고등학교	김석윤	이석규	최철기	성천교회	김기택감독
44	재현중학교	김진우	임성만	김의태	서울제일교회	심원보목사
45	천성중학교	한주호	이원주	김봉환	하늘중앙교회	유영완목사
46	천일고등학교		박준구	김창수	하늘샘교회	이성수목사
47	청신여자중학교	조명호	김기명	강석구	청양교회	김종필목사
48	태광중학교	김기영	황지연	최한영	기쁜교회	손웅석목사
49	태광고등학교		최총일			
50	파주중학교	최애도	이승정	김증배	삼양교회	정진권목사
51	세경고등학교		오순석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
52	팔봉중학교	정계훈	송국범	박정수	서산제일교회	이구일목사
53	팔렬중·고등학교	김고광	신학봉	강봉석	월곡교회	김종훈감독
54	호수돈여자중학교	조명호	임광순	김형일	논산제일교회	남문희목사
55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신현종	주금섭	하늘문교회	이기복감독

|| 자료 7 || 현황 ②

감리교 계통 대학 현황

학교명	총학장	교목	전화
감리교신학대학교	김홍기	여성훈	02) 361-0114
목원대학교	김원배	이광주 안승병 손삼권 김청봉	042) 829-7114
협성대학교	장동일	손성수 이호성 이광선	031) 299-0900
연세대학교	정갑영	조재국 한인철	02) 2123-2114
이화여자대학교	김선욱	손운산	02) 3277-2114
안산대학교	김주성	노현수 김재중	031) 400-6900
배재대학교	김영호	이성덕 김병태 손의성	042) 520-5114
남서울대학교	공정자	이사야	041) 580-2000
배화여자대학교	김숙자	전병식 김언영	02) 399-0700
인덕대학교	윤달선	구완서 장형철	02) 950-7000

|| 자료 8 || 조직

관련기관 임원 현황

학원선교회 조직

지도위원	김기택 감독 황방남 목사 김두범 목사	협동총무	이창복 목사
증경회장	김진호 감독 신경하 감독	서 기	최형근 목사
회 장	김종훈 감독	회 계	박춘희 목사
부 회 장	심원보 목사 남문희 목사	감 사	강홍복 목사 윤병조 목사
총 무	김영호 목사	간 사	김종남 전도사

교목회 조직

회 장	우종억 목사 (중고등학교) , 안승병 목사 (대학교)
총 무	박성환 목사 (중고등학교) , 이호성 목사 (대학교)
회 계	김성광 목사 (중고등학교) , 전병식 목사 (대학교)
서 기	이기성 목사 (중고등학교) , 장형철 목사 (대학교)

기독교학교 교육헌장

1.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에게 응답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대업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는다.
3.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나 숙명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터전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의 목적과 완성의 날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믿는다.
4.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로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성이 개조될 수 있음을 믿는다.
5.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악과 부정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협조적인 새 질서를 수립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 기독교학교가 가지는 독특하고 신성한 사명임을 믿는다.

(1970년 9월 25일 제정)

[以上]